

## “ 삼성그룹 10만 노동자 민주노조 조합원으로 조직”

1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합동 기자회견... “노조파괴 수사와 직접 고용은 별개 문제”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삼성 무노조 경영 종식을 위한 투쟁계획’ 을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4월 1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삼성 무노조 경영에 마침표를, 노조파괴 범죄엔 엄벌을, 삼성 전 계열사에 노동조합을, 삼성 노동자에게 봄을’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과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 공식 폐기 선언하라 ▲25만 삼성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삼성그룹 포함 재벌 대기업들이 고용한 50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라 등을 요구하며 ‘헌법 안의 삼성으로 거듭나라’ 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는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직접고용 합의를 미중물 삼아 삼성그룹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한다. 10만 삼성 노동자를 민주노조로 조직한다” 라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 이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직접 고용이 삼성그룹이 지난 수십 년 간 지행한 노조파괴와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리며 “ 노조파괴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이 가버릴 수 없다” 라고 못 박았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직접 고용 합의는 “ 한국 사회의 노동에 관한 기준과 기본을 정상화한 합의” 라고 평가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 우리는 아직도 영호석 열사가 묻힌 곳을 모른다” 리며 “ 삼성은 노조 파괴 과정에 목숨을 잃은 최중범, 영호석 열사에게 진정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라고 요구했다.

나두식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지회장은 “ 조합원들은 직접 고용 소식을 환영한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직접 고용은 의미가 없고, 합의서에 이 정신을 반영했다” 라고 밝혔다.

나두식 대표지회장은 “ 노조파괴 수사와 직접 고용을 연관 지었다면 직접 고용을 거부했을 것이다. 노조파괴 수사와 직접 고용은 별개의 문제다” 라고 선을 긋고, 검찰수사에서 ‘ 최중범, 영호석 열사의 죽음과 지옥 같았던 조합원들의 삶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 “ 싸워, 배앗긴 월급· 정규직· 권리· 평등사회 되찾을 것”

최저임금 개악저지, 비정규직 철폐 4.21 대항진... “최저임금 1만원에서 노동헌법 개정투쟁으로”

전국에서 서울에 모인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개악저지와 불법파견 상시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금속노조와 ‘ 배앗긴 최저임금 돌려놔 4.21 대항진 준비위원회’ 는 4월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 최저임금 개악저지, 비정규직 철폐 4.21 대항진’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1부 4.21 대항진 선언과 증언대회, 2부 4.21 대항진 순서로 열었다.

4.21 대항진 참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저지(상여금 복리수당 산입범위 포함저지) ▲상사 지속 생명 안전업무 정규직 사용(정규직 사용원칙) ▲진짜사장 원청회사 노동 3권보장(원청의 사용자 책임) ▲기간제법, 파견법, 노동의법 폐지(비정규직 확산 방지)를 요구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 동지들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차 있느냐” 리며 “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넘어 노동헌법 개정투쟁을

벌어보자” 라고 주장했다.

4.21 대항진 참가 노동자들은 종로기에서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개악을 시도하고 불법파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자본과 정권을 빗자루로 쓸어내는 상징의식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 싸워 배앗긴 월급을 되찾고, 배앗긴 정규직 자유를 되찾고, 배앗긴 권리를 되찾고, 배앗긴 노동존중 사회를 되찾고, 배앗긴 평등사회를 되찾을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비는 내리고, 경찰은 길 막고, 청와대는 귀 막고

쌍용차 ‘함께 살자, 같이 살래요’ 청와대 행진...해고자 전원 복직, 쌍용차 진압 국가폭력 진상규명 등 요구

비가 내리는 가운데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을 위한 ‘워낭소리’가 평택에 이어 서울에서 울렸다.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는 4월 22일 쌍용차 ‘함께 살자, 같이 살래요’ 행진을 벌였다. 노조와 지부는 해고자 전원 복직과 국가폭력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차량 10대를 끌고 남대문부터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이



행진에 쌍용차 해고자 복직 투쟁에 연대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해고자 전원 복직 ▲쌍용차 해고 과정에서 벌어진 국가폭력 진상규명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기입료 철회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석방 등을 요구했다.

‘워낭소리’ 행진 1호 차량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호규 노조 위원장, 임원들이 끌었다. 다른 차들은 종교계와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 방과 후 학교 아이들 등 쌍용차 투쟁에 함께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힘을 모았다.

김정옥 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은 “2009년 국가는 폭력으로 쌍용차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내몰고, 손배 기입료로 고통을 주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로 간다”라고 행진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행정법원이 허가한 행진 차량 열대를 막기대로 막았다. 경찰의 방해로 행진은 1시간 가량 늦게 시작했다.

행진 시작에 앞서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해고노동자의 절박함을 경찰 방해로 가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청와대로 행진할 것이다. 오늘 행진이 해고노동자들이 복직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차량을 끌며 서울시민에게 쌍용차 대량 해고는 자본과 이명박 정권이 공모하고, 자본은 기술역투로 국가는 폭력으로 노동자

들을 짓밟은 사건임을 알렸다.

행진대열은 힘겹게 청와대 앞에 도착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에 나섰다. 김명환 위원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 청년, 실업, 해고노동자의 노동과 이권을 존중하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노동존중이다. 노동존중은 문재인 정부가 주는 혜택이 아니라 촛불시민과 한 약속이다”라며 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인천에 있는 ‘가차 길옆 아이들’ 방과후 학교에 다니는 강현울 학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 강현울 학생은 “제가 나중에 노동자나 선생님이 됐는데 해고되면 많이 억울할 것 같다. 쌍용차 이저씨들이 복직하면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복직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에 호소문을 전달하고 온 김득중 지부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각본에 의해 쌍용차 노동자들은 폭력으로 공장 밖으로 쫓겨나고, 손배 기입료로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이 노동자들의 외침을 문재인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 “정권이 강압 쓰면 장렬하게 전사할 것”

중형조선소, 노동자 생존권 보장 2차 경남도민대회... “금속노조, 구조조정 맞서는 투쟁 결의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대책위가 4월 19일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중형조선소 정부 정책 규탄, 노동자 생존권 보장 2차 경남도민대회를 열었다.

노조 영남권 조합원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 경남 도민 3000여 명이 모여 인적 구조조정에 몰두하는 문재인 정부의 조선정책을 비판했다.

강기성 금속노조 성동조선지회장은 “박근혜 보다 더한 문재인 정권이다. 성동은 통영 제조업의

70%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지역경제의 핵심 사업장이다. 통영, 경남에서 많은 표를 얻은 민주당이다. 하지만 이제 조선산업 살리겠다고 얘기하는 후보조차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영수 STX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사흘에 걸쳐 파업하고 민주당 경남도당 정거능성을 벌였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멈추지 않고 비정규직이 배를 만드는 조선산업 정책을 펴고 있다. 강고한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주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홍지욱 경남지부장, 김준일 구미지부장, 정홍형 부산양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이 연단에 올라 조선 조합원들에게 연대 투쟁의 의지를 전했다.

한경오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STX조선과 성동조선 살리기 위해 경남도민이 마음을 모았다. 흡족하진 않지만, STX조선은 최악을 면했고, 성동조선은 지켜보아졌지만 반드시 희생해야 한다”라며 “경상남도도 미력하지만, 중형조선소 회생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 노조와 함께 끝까지 가야 살길 열린다”

한국지엠 먹튀협박 분쇄 총고용 보장 결의대회 열어...김호규 위원장, 18일부터 부평공장 조립사거리서 농성

금속노조가 4월 18일 한국지엠 부평 공장 앞에서 ‘ 한국지엠 먹튀 협박 분쇄, 총고용 보장 금속노조 결의대회’ 를 열었다. 노조 조합원 2500여 명이 한국지엠 정상화와 총고용 보장을 지엠 본사가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엠 본사는 노조와 한국 정부가 4월 20일까지 지엠 본사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한국지엠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엠은 비용 절감을 위해 노조 한국지엠지부에 임금삭감에 이어 단협까지 내 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엠은 노조가 양보해야만 군산공장 조합원들의 고용에 대한 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 한국 지엠뿐 아니라 금속노조 전체의 총력투쟁을 조직하겠다. 위원장이 부평공장 조립사거리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며 투쟁을 조직하겠다” 라고 선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 금속노조가 한국지엠 투쟁이 잘 굴러가도록 튼튼한 바퀴가 되겠다. 확실한 운전사가 돼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겠다” 라고 약속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 조합원들은 추가 희생되지



미움먹으면 안 된다. 현대차 정리하고, 대우차 정리하고 투쟁의 교훈은 끝까지 노조와 함께 싸운 동지들을 노조가 책임졌다는 사실이다” 라고 상기했다.

임한택 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투쟁사에서 “ 지엠이 한국지엠을 두고 법정관리하겠다는 자해소동을 벌이고 있다. 회사를 부실하게 만드는 경영을 하며 돈을 빼돌리더니, 노조가 양보하면 회사 미래가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한택 지부장은 “ 산업은행과 정부는 지엠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약속을 받아야 한다. 실사 과정과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리며 “ 이미 많은 노동자가 희생당했다. 더

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장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지엠자본과 맞서 싸우자”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홍 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장은 “ 지엠이 군산공장을 5월까지 폐쇄하고, 한국지엠을 부도 처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리며 “ 비정규직, 군산공장 정규직 그다음은 누가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 해니를 내주면 자본은 다른 공통 분담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한국지엠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지엠의 위법한 비정규직 고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황호인 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 한국지엠의 비정규직은 대법원 판결로 정규직 인정을 받았다” 리며 “ 정부가 말하는 대주주 책임, 이해당사자 고통분담, 미래 발전전망 제시의 3대 원칙에 비정규직 철폐를 함께 담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부평역까지 행진하며 인천시민에게 지엠 자본의 부도덕함을 알리고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 모비스위원회, “ AS 부품· 모듈 사업 분할· 합병 결사반대”

글로벌비스 합병, 현대차 재벌 순환출자 필수...지부, “모비스위원회 투쟁, 지지-엄호한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모비스위원회 전 조합원이 4월 19일 서울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에 올라와 ‘ AS 부품·모듈 사업 분할· 합병 결사반대 결의대회’ 를 열고 분할· 합병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오해명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모비스위원회 의장은 투쟁사에서 “ 현대차로 들어온 뒤 18년 동안 골병들며 일한 모비스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정몽구, 정의선 부지를 위한 분할· 합병이다” 라고 성토했다.

오해명 의장은 “ 모비스위원회는 독자 파업권을 확보했다” 리며 “ 현대차 재벌의 순환출자 필수인 ‘ 모비스 AS 부품·모듈 사업 부문 글로벌비스 합병’ 이사회 결정사항 폐기와 분할· 합병 저지를 위해 끝까지 기보자” 라고 결의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 현대차 자본이 현대정공에서 현대자동차로, 모비스로, 이제 글로벌비스로 분할 합병한다는데, 왜 노동자들이 작업복을 세 번이나 바꿔

입어야 하느냐” 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허부영)는 3월 29일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은 현대차 정몽구 총수 일가의 회사기회 편취와 사익추구를 위한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결사반대 견해를 밝혔다. 지부는 4월 11~12일 대의원대회에서 분할· 합병에 따른 모비스위원회 노동쟁의 발생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